

이름: _____

*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소리를 쓰시오,

영화를 사랑하는 관람객입니다. 저는 감동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는 두 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관람을 할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영화의 여운을 느끼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극장 직원들이 들어와 실내조명을 켜는가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빗자루를 휘두르는 바람에 쫓겨나듯 좌석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영화의 주제가와 영화 제작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보여 주는 것도 영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은 길어야 2~3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일부러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영화의 마지막을 차분히 음미할 최소한의 여유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람객들이 미처 감상을 다 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이유는 영화관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관람객이라면 조명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상태에서 서둘러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명이 켜진 뒤에도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민망한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불이 켜진다는 것은 영화가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관 관계자 분들께 물고 싶습니다. 영화의 본 내용이 끝나자마자 관람객을 서두르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동이 관람객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화의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영화가 주는 감동에 잠시 몸을 맡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영화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